

호주산 수출 생축 동물복지에 관한 조사

장성준¹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접수 2006. 4. 1., 게재승인 2006. 6. 15)

Survey on animal welfare problems in Australian exporting live animals

Seong-Jun Jang¹

Gyeongbuk Veterinary Service Laboratory, Daegu, 702-701, Korea
(Received 1 April 2006, accepted in revised form 15 June 2006)

Abstracts

Last year, over 800 Australian live cattle were imported, underwent quarantine procedure for one month in the port of Incheon and Busan and distributed to general farm house holds in Gyeongju city, Gyeongbuk province, and Gimhae city, Namhae county, Gyeongnam province. But Hanwoo association took violent actions to prevent from entering the country for fear that the imported live cattle would destroy the "Hanwoo industry", and in turn leads to the collapse of the industry.

In Australia, national animal protection body "Animals Australia" investigated the level of cruelty involved in this trade and made a report "The death file". Australia governments drive to expand its market for 'live animal exports' and it has resulted in a corresponding increase in casualties associated with the long-haul overseas trade in live livestock animals over the past years. After the stress of transportation, all the surviving cattle and sheep face death on foreign soil, many into countries which have no animal welfare laws or, at best, inadequate laws. They will usually be killed without pre-stunning and often even without adequate restraint facilities. The result is inherent and persistent suffering. West Australian(WA) Police acting on behalf of the West Australian Government and the Office of the WA State Solicitor have laid

¹Corresponding author

Phone : +82-053-326-0011, Fax : +82-053-326-0014

E-mail : prince56@gb.go.kr

animal cruelty charges against a leading WA live export company for breaching the WA Animal Welfare Act. With the aim of eventually substituting it for the live sheep trade,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Animal Welfare(SCCAW) recommende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promote and encourage the expansion of the refrigerated sheep meat trade to the Middle East and other countries".

Animal welfare standards have been improved time after time, there is another incident, another public outcry, another inquiry and more assurances.

Key words : Australian live cattle, The death file, Animal welfare act

서론

2005년도에 들어온 호주산 생우는 800여 두이며, 인천항과 부산항 검역원 계류장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검역과정의 검사를 거쳐서, 경북 경주시, 경남 김해시, 남해군 등의 분양계약농가에 분산하여 입식되었다. 2003년도 2월 이후 1년 이상 중단되었다가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산업의 기반 붕괴를 우려하여 농가입식을 저지하고, 생우 입식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사료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였다¹⁻¹⁰⁾.

한편 호주에서는 동물보호협회가 중심이 되어 생축수출을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수출항구 계류장에는 관련단체에서 내건 동물학대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사진 1, 2).

호주산 생축은 수송단계별로, 사육농가에서 출발하여 수송선에 선적하고, 항해를 하게 되며, 수입국가 항구에서 하역을 하고, 계류시설에서 검역을 위한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화물차량에 실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생축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도착단계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도살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자행하였다.

생축을 화물차량에 과적하거나, 상하차시에는 작업인부들이 마구 던지거나 급하게 내몰아서 상처를 입거나 골절을 당하게 되었으며, 수송선박내부 수용시설의 과밀, 환기불량, 고

온 및 습도 등으로 집단폐사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폐사한 가축은 해양 투기하였고, 이중 일부는 인근 국가, 섬 주변을 떠다니다가 해안가에 나뒹구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여 주민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호주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몇 년간에 걸쳐 조사·연구하고 ‘폐사화일¹¹⁾’을 만들었으며, 생축수출회사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를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다.

호주정부에서는 생축수출을 시작하면서부터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생축 수송도중의 폐사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생축수출회사는 공식적인 폐사두수나 폐기두수를 축소하여 피해상황을 보고하였고, 이에 호주정부에서는 폐사사고가 발생한 수송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동물학대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동물보호협회에서는 수송선 폐사사고와 관련된 동물학대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60분 분량의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수출회사에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동물복지법 개정을 추진하였다¹²⁾.

동물복지는 호주 내에서 뿐만 아니라 생축을 수입한 국가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동물보호활동가 및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운동을

펼치거나, 생축수출회사의 재정적인 협조를 구하여 가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도축장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여야 한다.

호주 상원의원인 Bartlett¹³⁾는 의회 연설을 통해 수출과정에서 자행된 동물학대를 고발하고, 지금은 생축수출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며, 산업적인 효과로서는 고용기회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므로 대체산업인 육가공업을 육성하여 냉동육을 수출하는 등 호주 내에서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사방법

호주동물보호협회의 폐사화일 보고서에서 생축수출물량 및 폐사율 통계, 사고기록 및 생축회사 동물복지법 위반혐의 기소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타 논문, 문헌,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다.

호주의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은 <http://www.slp.wa.gov.au/statutes/swans.ns>에 접속하여 출력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조사결과

1. 폐사화일

지난 7년간 호주 정부에서는 생축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무역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수출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수송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폐사하는 가축의 개체수도 증가하였다. 생축 수출산업의 역사는 가축이 폐사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수난의 연속이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면양 수출을 재개하였을 때는, 이미 중동으로 훨씬 더 많은 생축을 수출하였다.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으로 살아남은 육우나 면양은, 외국의 토양에 적응해야 되며, 수입국가에 동물복지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이 미비

하여 대부분은 폐사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생축은 사전에 기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살을 하거나 부적합한 시설에서 계류하였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생축의 고통도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

호주동물보호협회에서는 생축 수출에 따른 폐사율 수치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하였다.

2. 생축 수출역사

1985년도, 면양 수출이 호황을 이루던 시절에, 상원의 동물복지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면양 수출에 대하여 비난을 하였다. 동물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동물복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앞으로 수출을 중단해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라고 하였으며, 연방정부에서는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냉동면양고기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라고 권고하였다.

수출물량이 증가하면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생축 수출을 시작하여 18년째 경과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야 생축 수출에 대한 몇 편의 비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후에도 호주정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권고사항을 반드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살용 생축이 해외에서 엄청난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생축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또한 폐사율도 증가하였다. 이는 가축 개체가 겪게 되는 고통은 잊어버리고, 생축 수출물량을 확대한 결과이다. 가축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출용 선박에는 항상 수의사가 승선해야 하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집단폐사(대규모 손실)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가축을 보호해야 할 의무(동물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호주동물보호협회에서는 생우수출과정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사고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아래 표의 폐사율 외에도 호주동물보호협회에서는 중동지역에서 건강하지 않은 소에 대한 검역 불합격률, 특히 *Bos taurus* (유럽 품종으로 주로 호주남부항구에서 선적한 소)는 통상 수입 주문량의 3-5%선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폐사율은 최종보고서에서 나타난 공식적인 통계수치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 중동에서 남부항구로 귀환시 (10일 이상 항해기간이 소요됨),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폐사율은 거의 1%에 도달하며, 하역한 후부터 수송도중이나 도살전 계류장에서도 또한 폐사가 되었다.

(1) 호주의 주요 수출 대상국

◦ 면양(25개국) : Saudi Arabia, Kuwait, United Arab Emirates, Jordan, Oman,

Bahrain, Qatar, Egypt, Israel, Lebanon, territories administered by Palestine, Ukraine, Malaysia, Singapore, Mauritius, New Zealand, Vanuatu, Brunei, China, Japan, USA, Mexico, Argentina, Chile, Philippines.

◦ 도축용 소(24개국) : Qatar, Egypt, Israel,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Jordan, territories administered by Palestine, Mauritius, Kuwait, Mexico, China, India, Korea, Japan, Vietnam,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Brunei, New Caledonia,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Singapore and USA.

※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 Forestry, Australian Government (2003. 10. 21)

◦ 소 수출 통계 : 1995년 - 2003년

표 1.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생우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수출두수 | 430,653 | 505,777 | 678,585 | 299,501 | 462,540 | 586,569 | 468,381 | 630,711 | 587,716 |
| 전체폐사율(%) | 0.11 | 0.05 | 0.09 | 0.16 | 0.34 | 0.11 | 0.08 | 0.07 | 0.05 |
| 폐사범위(%) | 0.0-8.5 | 0.0-1.2 | 0.0-1.7 | 0.0-8.8 | 0.0-74.7 | 0.0-5.3 | 0.0-5.0 | 0.0-8.5 | 0.0-2.2 |
| 폐사두수 | 473 | 252 | 610 | 479 | 1,572 | 645 | 375 | 441 | 294 |

표 2. 중동으로 수출된 생우 (주로 이집트)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수출두수 | 14,577 | 65,066 | 137,869 | 262,432 | 316,964 | 274,639 | 287,447 | 268,936 | 106,080 |
| 전체폐사율(%) | 0.67 | 0.65 | 0.67 | 0.69 | 0.35 | 0.42 | 0.33 | 0.61 | 0.45 |
| 폐사범위(%) | 0.0-2.1 | 0.0-5.0 | 0.0-4.2 | 0.0-41.5 | 0.0-3.3 | 0.0-8.0 | 0.0-5.0 | 0.0-35 | 0.0-2.0 |
| 폐사두수 | 97 | 422 | 923 | 1,810 | 1,109 | 1,153 | 948 | 1,641 | 477 |

(2) 생우 수출도중 사고 기록 (표 1, 2)

◦ 1996년도 :

Guernsey Express호는 일본 오사카로 항해도중 침수로 침몰 및 생우 1,592두 익사.

◦ 1998년도 :

1월, Anomis호는 2,400여두의 산양과 소를 선적하여 Geraldton WA를 출발하여 말레이시아에 입항하였으나 수출업자, 하주 및 수입업자간에 재정적인 분쟁에 휘말려 하역

을 할 수 없게 되었음. 수송선은 2주간 정박 및 그 결과로 산양 283두 및 소 154두 폐사.

◦ 1998년도 :

발동기선 Charolais Express호는 Bunbury (WA)를 출발하여 요르단으로 항해하던 도중에 심한 풍랑을 만남. 선적된 1,200두중 소 346두가 부적합한 환기로 인한 폐사. 50두는 요르단 항구에 도착한 후 폐사, 174두 이상

부상 및 이환, 요르단 및 예멘에서 검역 거부로 최종적으로 바다에 폐기.

○ 1999년도 :

Temburong호는 소 829두를 선적하고 다윈을 출발하여 이란 Jaya로 항해도중 동력차단으로 인한 환기불량으로 소 829두 전두수 질식사. 이러한 사고이후 예비 동력원 확보에 대한 사양관리상의 개선점이 지적되었음.

○ 1999년도 :

1999년 12월, Kalymnian Express호는 소 800두를 선적하여 호주서부지역에서 인도네시아를 향해 항해하였음. 호주서부의 북서해안지역을 벗어날 무렵 사이클론 영향으로, 소 300여두 부상으로 인한 폐사 및 이후 폐사축 전두수 폐기¹⁴⁾.

○ 2001년도 :

한국으로 2차례에 걸쳐 수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식지역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힘. 지역농민들은 생우수입으로 '한우'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였음. 6두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폐사하였고 나머지 소는 격리수용하였으며, 한국정부에서 소를 도축장으로 이송하기까지 선상에서 체류하였음.

○ 2002년도 :

2월에 노르웨이 노르스케 베리타스(NV) 선급의 Norvantes호는 1,169두의 소를 선적하고 출항하였으나 심한 풍랑으로 이중에서 99두가 폐사.

○ 2002년도 :

7월에는, 전동기선 Maysora호는 소와 양을 선적하고 호주를 출발하였으나, 고열로 인한 스트레스와 하역과 수송이 지연되고, 국경 통과도 지연되어 200여두가 폐사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도착 후 폐사하였음. 이스라엘 당국은 검역지연과 수송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 주 동안 호주에서 소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음을 보고.

○ 2002년도 :

전동기선 Becrux호는 최고 수준의 동물복지 시설을 갖춘 수송선으로서, 7월경에 소 1,995두와 면양 60,000두를 선적하여 포틀

랜드 빅토리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처녀 출항하였으나, 아라비아 만을 지나면서 고열(45℃)과 습도에 의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 880두 및 면양 1,400두가 폐사되었음. 나머지 가축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검역을 거부하여 다른 구입국가를 물색하기까지 선상에 체류하였으며, 이후 아랍연맹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음¹⁵⁾.

※ 동물학대 관련사진 (사진 3-24).

(3) 면양 수출

대부분은 항해도중에 폐사하였다. 면양의 수출과정에서 대부분의 폐사는 항해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폐사 원인 중 47%는 선적하기 이전에 계류기간이 있음(노령의 면양이나 초지에서 방목한 가축은 펠렛사료로 변경하기 어려우며 많은 수의 개체는 굶주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굶주림(호주정부에서 발행한 공식기록물에는 사료기피증, 영양결핍 혹은 식욕결핍 증상으로 완곡하게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폐사원인으로는 살모넬라감염증으로 대부분은 부적합한 사료섭취로 인하여 감염되었다(12.2%). 또한 도착 후에도 폐사가 일어났다.

면양은 선적한 수송선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최악의 환기불량, 고온 및 다습한 상태로 고통을 견뎌내야 했으며, 특히 몇몇의 항구에서는 하역이 금지되거나 혹은 계류시설이 부적합하여 하역작업을 느리게 진행하였다. 하역 상황에 따라, 일부 가축은 곧바로 도살장으로 향하게 되고, 나머지는 계류시설로 되돌려 보내졌다. 1990년대 초기에는 계류장에서 폐사한 면양의 폐사율은 3%로 보고되었다.

중동지역에서 계류장에서 폐사한 면양숫자를 집계한 결과, 실제로 폐사한 개체수는 매년 150,000두 정도였다.

표 3. 면양 통계 : 폐사율 981-2003
호주에서 중동(선적, 항해, 폐기된 개체수 그리고 멕시코, 파키스탄 및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몇몇 국가로 수출한 소량도 포함)으로 수출

| 연도 | 총 수출두수* | 폐사두수** | 폐사율(%) |
|------|-----------|---------|--------|
| 1981 | 4,357,345 | 102,630 | 2.36 |
| 1982 | 5,787,660 | 129,233 | 2.23 |
| 1983 | 6,127,916 | 126,046 | 2.06 |
| 1984 | 6,537,387 | 132,821 | 2.03 |
| 1985 | 7,088,209 | 133,990 | 1.89 |
| 1986 | 6,557,410 | 127,515 | 1.94 |
| 1987 | 8,439,069 | 138,543 | 1.64 |
| 1988 | 7,013,427 | 120,962 | 1.72 |
| 1989 | 5,116,343 | 110,085 | 2.15 |
| 1990 | 4,153,703 | 81,607 | 1.96 |
| 1991 | 3,972,000 | 83,226 | 2.10 |
| 1992 | 4,583,938 | 137,432 | 2.99 |
| 1993 | 5,108,722 | 129,414 | 2.53 |
| 1994 | 5,458,746 | 109,000 | 2.00 |
| 1995 | 5,784,207 | 98,654 | 1.95 |
| 1996 | 5,593,465 | 152,930 | 2.79 |
| 1997 | 5,122,981 | 68,136 | 1.33 |
| 1998 | 4,928,965 | 75,413 | 1.53 |
| 1999 | 5,051,772 | 67,693 | 1.34 |
| 2000 | 5,436,202 | 71,214 | 1.31 |
| 2001 | 6,712,332 | 84,575 | 1.26 |
| 2002 | 5,943,557 | 73,700 | 1.24 |
| 2003 | 4,546,211 | 45,462 | 1.00 |

※ 상기 표는 호주동물보호협회에서 수집한 서부지역 주정부 교통부 및 농업부의 1989년도 이후부터 면양수출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약하였음.

*: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동남아시아로 수출한 두수를 포함

** : 공식적인 폐사율을 근거로 계산한 숫자

(4) 면양 수출도중 사고 (표 3)

○ 1980년도 :

Farid Fares호에 화재로 인하여 전체 화물량(면양 40,605두 선적)이 소실됨.

○ 1980년도 :

Kahleej Express호에 선적한 면양 2,713두가 질병으로 폐사.

○ 1981년도 :

Kahleej Express호에서 A1 Shuuwaikh호로 이송하는 도중 면양 635두 폐사.

○ 1981년도 :

Persia호에 선적한 면양 8,764두가 환기시설 불량으로 폐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scabby mouth (전염성농포성피부염, contagious pustular dermatitis)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클레임으로 다수의 호주산 생축에 대한 검역을 거부하였음.

외항에서 수송선에 실린 채 검역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무기력해지거나, 검역거부로 인하여 구입처를 찾기 위해 다른 항구로 운송하는 도중 폐사축 발생. 폐사율은 평균 6%로 급상승.

○ 1990년도 :

Mawashi AI Gasseem호는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된 나머지 면양에 대한 구입처를 찾기까지 16주간 해상에서 대기하였음.

○ 1990년도 :

1990년 5월 최신형 Cormo Express호는 뉴질랜드를 출발하였으나 환기상태가 부적합하여 열사병, 폐염 및 기타 질병 발생과 식욕 불량 등으로 중동에 도착할 무렵에는 면양 10,000두 정도가 폐사.

○ 1991년도 :

이란, 이라크 전쟁 종전 무렵에, 호주산 면양을 쿠웨이트로 운송했으나, 전쟁으로 황폐해진 빈약한 기반시설과 계류시설로 인하여 열사병과 탈수증으로 약 30,000두 정도 폐사됨. 1991년도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중동국가 계류시설에서 3주간에 걸친 검역기간 동안 생축 폐사율은 평균 3%이상을 기록.

○ 1992년도 :

공식집계표를 보면 선상 폐사율은 증가하여, 거의 3%선까지 도달하였음. 증가요인은 중동국가 한 곳의 항구에서 발생한 폐사사고라기 보다는 주로 여러 척의 수송선에서 하

역과정에서 발생한 폐사축 누적두수가 증가하였음.

○ 1996년도

Uniceb호 선상에서 화재 발생으로 면양 67,488두 폐사; 8일이 경과하기까지 구조활동을 할 수 없었음.

○ 2002년도 :

전동기선 Becrux호는 동물복지시설을 갖춘 최고 수준급 수송선으로 소 1,995두와 면양 60,000두를 선적하여 포틀랜드 빅토리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처녀출항. 아라비아만을 항해하는 동안 고열(45℃)과 습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소 880두 및 면양 1,400두 폐사.

○ 2002년도 :

7월과 8월에 중동으로 출항한 4척의 수송선은 면양에서 높은 폐사율을 기록. 항해도중 면양 총 15,156두가 폐사하였고, 나머지는 폐기상태가 되었음. Cormo Express호 면양 총 1,064두 폐사, Corriedale Express호 면양 6,119두 폐사. Al Shuwaikh호 면양

5,800두 폐사 및 Al Messilah호 면양 2,173두 폐사.

※ 동물학대 관련사진(사진 25-27).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FFA) 및 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 (AQIS)에서 각기 다른 설문조사를 4회 실시, AQIS 수의사 선승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보고서를 채 완성하기도 전에 최소한 1척 이상 수송선이 규정을 초과하여 면양을 선적 하고 중동으로 출항하였음.

(5) 산양수출

산양은 호주에서 대부분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주요한 선적항구는 Fremantle, Adelaide 및 Portland 3개 도시이다.

○ 산양 수출 통계 : 1995-2003년도 (표 4, 5)

표 4. 호주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 통계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수출두수 | 4,818 | 5,208 | 14,363 | 10,698 | 10,143 | 14,728 | 31,150 | 42,032 | 36,048 |
| 전체폐사율(%) | 2.24 | 1.73 | 2.53 | 4.55 | 2.44 | 1.65 | 1.37 | 1.05 | 0.76 |
| 폐사범위(%) | 0.0-7.8 | 0.0-4.1 | 0.0-7.0 | 0.0-28.8 | 0.0-5.0 | 0.0-8.7 | 0.0-6.9 | 0.0-9.9 | 0.0-3.1 |
| 폐사두수 | 108 | 90 | 363 | 487 | 247 | 243 | 427 | 441 | 274 |

표 5. 호주에서 중동지역으로 수출한 통계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수출두수 | 2,526 | 9,790 | 6,259 | 8,650 | 6,193 | 6,310 | 42,878 | 69,419 | 16,552 |
| 전체 폐사율(%) | 3.17 | 2.17 | 2.48 | 1.68 | 2.80 | 2.08 | 2.25 | 2.03 | 0.88 |
| 폐사범위(%) | 0.0-6.5 | 0.0-4.1 | 0.0-4.6 | 0.0-5.0 | 0.0-7.6 | 0.0-8.0 | 0.0-9.0 | 0.0-3.4 | 0.0-1.7 |
| 폐사두수 | 80 | 212 | 155 | 145 | 173 | 131 | 965 | 1,409 | 145 |

※ 2003년도 동북아시아로 산양 597두 수출, 일부는 동남아시아로 항공편으로 807두 수출

◆ 폐사두수를 셀 수는 있으나, 생축이 긴 여정을 거쳐 도착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에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 생축 수출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

3. 수출생축 집단폐사 사고 조사

수출업자들은 수송 도중 고통이나 폐사 따

위는 전혀 없었고, 생축을 항상 1등급 수준으로 관리하였다고 설득하려고 하였다. 실제로는 가축이 농장문을 나서서 운송되는 날부터

고통은 시작되었고, 이미 수송 도중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목적지 국가에 도착해서는 경정맥 절단에 의한 방혈과 같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되기까지 고통은 지속되었다.

생축을 아주 오랜 기간동안 수출하면서도 가축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폐사한 가축의 숫자(폐사율)만 줄이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축은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개체는 상당한 숫자에 이르게 되었다.

수출업자들이 폐사축 숫자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공식적인 폐사율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고심하게 되었다. 수출업자들이 발표하고 싶은 공식적인 폐사축 숫자보다도 실제의 폐사율은 훨씬 높았다. 동물보호협회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생축 수출무역에 직접 관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동행한 사람으로부터, “최악의 상태였으며, 양을 들어 올릴 때는 두 손에 강렬한 감각을 느꼈다” 고 진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 면양 폐사율은 내부적으로 조작되었다.

‘폐사체 언덕’이란 이런 끔찍스러운 말은 생축수출에 어울리는 단어이다. 생축수출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이러한 잔혹성(동물학대)에 대하여 아연실색했으며, 세계 각지로의 생축 수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동물보호협회의 목적은 수출업자들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있었다.

(2) 중동지역 수출면양 폐사 유형별 분류

선박으로 수송 도중, 면양의 절반 정도는 농장을 출발할 때부터 사료를 섭취할 수 없게 된다. 면양은 방목하여 신선한 풀을 섭취하기 때문에 펠렛사료에는 잘 적응하지 못한다. 연간 수송 도중 발생한 면양의 폐사율은 약 2%정도이며, 이 수치는 매년 75,000두의 면양이 사료섭취 부진으로 폐사하게 된다.

표 6. 수출 면양 생존 및 폐사율(%)

| | |
|------------------|------|
| 생존율 | 97.0 |
| 폐사축 발생 및 검역 불합격을 | 3.0 |

표 7. 수송단계별 폐사율(%) 조사 결과

| | |
|--------------|------|
| 항해도중 폐사 | 53.8 |
| 선적도중 폐사 | 2.1 |
| 부두에서 검역 불합격 | 15.4 |
| 계류장에서 검역 불합격 | 12.3 |
| 계류시설에서 폐사 | 2.1 |
| 화물차량 수송도중 폐사 | 0.4 |
| 폐기처리로 폐사한 두수 | 13.9 |

표 8. 질병원인별 폐사율(%)

| | |
|------------|------|
| 영양결핍(식욕불량) | 47.0 |
| 살모넬라감염증 | 26.9 |
| 창상 | 12.2 |
| 기타 질병 | 13.9 |

(3) 생축 수송선에 대한 폐사사고 조사

호주정부(검역청)에서 주관하여 생축 수송 도중 발생한 사고 선박 중에서 특히 폐사율이 높은 7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⁶⁻²²⁾. 수송선 중 4척은 주로 7월 초순경에서 8월말 사이에 폐사사고가 발생하였음(표 6, 7, 8, 9).

(4) 폐사축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 2002년 8월 17일 :

몰디브공화국 섬 주변으로 소와 산양 폐사체가 파도에 떠밀려 와서 해안가로 나뒹굴었으며, 보건부에서는 폐사체를 치우기 위한 비상조치를 강구하였다. 동물사체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고, 그로인한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게 된다. 당국에서는 지난 70년대에도 해안으로 밀려온 동물사체로 인하여 콜레라가 번졌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동물사체는 온갖 세균을 운반한다. 폐사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동물사체를 치우고 나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건강센터에서는 섬 전역을 순회하면서 동물사체를 처리한 후에는 이러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²³⁾.

표 9. 수송선별 폐사율 조사

| 선박명 | 수출회사 | 축종 | 선적일자 | 선적두수 | 폐기일자 | 폐기두수 | 폐사두수 | 폐사율 (%) |
|--------------------|-----------------------|----|-----------|--------|-----------|--------|-------|---------|
| Norvantes. | Austock Exports | 소 | 2002.2.8 | 1,169 | NS* | 1,070 | 99 | 8.47 |
| Becrux | Wellard Rural Exports | 소 | 2002.6.14 | 1,977 | 2002.7.1 | 1,097 | 880 | 44.5 |
| | | 양 | 2002.6.14 | 63,413 | 2002.7.1 | 61,995 | 1,418 | 2.03 |
| Al Shuwaikh | Graeme Daws | 양 | 2002.7.18 | 85,974 | 2002.8.14 | 80,174 | 5,800 | 6.80 |
| Cormo Express | Fares Rural | 양 | 2002.7.23 | 52,485 | 2002.8.17 | 51,421 | 1,064 | 2.03 |
| Corriedale Express | Graeme Daws | 양 | 2002.7.31 | 55,594 | 2002.8.21 | 49,475 | 6,119 | 11.00 |
| Al Messilah | Graeme Daws | 양 | 2002.8.6 | 77,158 | 2002.9.1 | 74,985 | 2,173 | 2.82 |
| Al Shuwaikh | Graeme Daws | 양 | 2002.9.1 | 74,740 | 2002.9.24 | 72,436 | 2,304 | 3.08 |

* NS : not stated in report

- Cormo Express (사진 28) 폐쇄형 수송선, 가축을 갑판 아래에 수용하는 구조로, 환기시설을 작동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하고, 바닥의 배수불량으로 배설물 청소가 용이하지 않으며, 전원공급 중단 및 환기시설 작동불량 시에는 집단폐사를 유발.
- Al Shuwaikh (사진 29) 개방형 수송선, 가축수용시설은 갑판위에 설치된 구조로, 바깥쪽 케이지에 있는 가축은 다량의 염분을 함유한 입자가 분무되어 시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벌크사료통 덮개부분, 연료통 및 갑판에서 복사열이 작용하고 무더운 날씨로 가축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환기는 전적으로 자연통풍에 의존.

(5)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

○ 2003년 8월 10일 : 아라비아만 석유시추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의 편지 원문을 발췌한 내용²⁴⁾.

| | |
|---|---|
| <p>면양 및 생축수출사업에 종사하는 양심을 가진 분들에게</p> <p>가축을 가득 신고서 Fremantle로 출발하는 화물차량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마치 호주사람이 된 것처럼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가축을 실은 배가 호주를 출발할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에는 북반구의 한여름에 해당하며 수온주는 평균 40℃이상을 웃돌게 됩니다.</p> <p>일상생활에서 에어컨의 수혜를 누려온 사람들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상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허약한 노령의 면양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서 있어야 하고 주어진 여건을 잘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p> <p>면양은 사람이 주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 가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축에 비해 호주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사람들은 다만 단기간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p> <p>동물복지를 전적으로 배려하여 면양을 운송한 수출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싫은 분(그냥 지나쳐야 하는 사람)들은 이</p> | <p>런 타락한 무역에 관한 흥미 진진한 보고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p> <p>저는 여러 해 동안 아라비아만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추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양을 운반하는 화물선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면양수송선이 수평선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바람에 실려 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는 면양사체가 시추지역 주변을 떠다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해류가 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p> <p>왜 많은 면양들을 단 하루 만에 바닷물로 던져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p> <p>그들 중 한 쌍이 헤엄을 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에는 이런 일은 검역심사에서 불합격하거나 판매하기도 전에 폐사해버리는 개체들만 골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p> <p>면양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배편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수송선 측면에서 면양을 견게 하거나 갑판위로 밀쳐 올려야 합니다. 중동국가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지역의 종족, 풍속 및 관습에 대하여 이해하기 힘듭니다.</p> |
|---|---|

| | |
|---|---|
| <p>냉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면양을 살려서 보내야 한다고 말하면 완전한 거짓말로 여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슈퍼마켓이 있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도 있다면, 모든 종류의 냉동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p> <p>중동지역의 어느 나라에서 뒷골목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리만 보았는데 다른 개체는 더 이상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허약한 면양의 발굽</p> | <p>을 잡아 매달고서는, 목 부위를 절반정도 절단한 채로 가축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면양 중에서 일부이지만 이들이 처한 운명은 끔찍할 따름입니다.</p> <p>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축무역을 절대로 묵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면양이 처한 운명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며, 소름이 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p> |
|---|---|

(6) 수송중 발생하는 면양 및 산양 질병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 도중에 발생한 평균 폐사율은 0.4%이며, 폐사범위는 0.1-1.0%이었다. 이 수치는 호주에서 선적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폐사율이다. 산양은 폐사율이 다소 높다. 항해할 때마다 다르지만, 1일 폐사율은 항해 초기에는 낮으나 항해가 끝날 무렵에는 높아진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면양과 산양의 두 가지 주요한 질병으로는 영양결핍과 살모넬라감염증이다. 승선 수의사용 수첩²⁵⁾에는 다음과 같은 면양 및 산양의 질병을 소개하고 있다.

영양결핍 : 면양은 수송선에서 급여하는 펠렛사료에 적응하지 못해 ‘사료기피증’을 나타낸다. 몇 마리는 수척하고 현저하게 야위며, 대부분의 양은 사료를 먹지 못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로 보이므로, 폐사하기 전에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며칠간 굶주리게 되면 제1위내 미생물총은 파괴되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다.

비경쟁적인 양 (무기력증) : 펠렛사료를 먹기는 하나 먹이를 향해 나아가기를 꺼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조금씩 섭취하게 된다. 폐사하지는 않지만 체중이 점차 감소해서 긴급도살을 해야 할 빈약한 상태로 되어 항해도중 폐기한다.

살모넬라증 : 감염된 양은 식욕절폐, 발열, 둔해지거나 무기력해진다. 설사를 동반한 급

성위장염으로 진전하고, 설사 내용물에는 점막층, 혈액 및 엷은 수양성 액체가 섞여있다.

핑크아이 : 모든 수송선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면양과 산양은 수출하기전 계류장에서 계류기간이 길어지면서 핑크아이가 확산되기 쉽다.

스캐비마우스 (전염성농포성피부염) : 수출 과정에서 계류장이나 수송선에서 많은 어린양을 혼사하고, 과밀수용과 사료통내의 조약한 펠렛사료를 섭취하게 되면 스캐비마우스가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항해도중 스캐비마우스에 걸린 양은 격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므로 내과할 때까지 지켜볼 따름이다. 스캐비마우스 병변이 뚜렷한 면양과 산양에 대한 처리는 항해가 끝날 무렵 입항하기 전날에 결정한다.

폐염 : 주로 어린 양에서 관찰되며, 1년생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노령의 양에서는 드물게 발생한다.

고체온증 : 무더운 기후에 우리에게 가둔 채 항해를 하면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고체온으로 인한 폐사는 수용시설 온도가 40℃ 이상 및 습도는 90%를 초과하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 위기 상황하에서는 면양과 산양은 수 시간 내에 집단으로 폐사할 수 있다. 영향을 받은 양은 체온을 방출하기 위해 숨을 헐떡거린다. 항문내 온도는 (43℃) 상승하고 곧 허탈한 상태에 빠져 폐

사한다. 이동식 선풍기를 설치하여 위험에 처한 어린 양이나 무더운 날씨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수용시설에는 환기를 시켜주어야 한다.

질식사 : 사료급식시설 고장으로 사료급식을 재개할 때 사료통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발생한다. 사료공급시설의 기계적인 고장으로 사료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양이 서로 포개어져 질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동시에 직접 손으로 사료를 주어야 한다.

제 농양 : 제 농양은 항해 중 드물게 발생한다.

콕시듬증 : 산양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으로 설사를 하는 개체는 보온과 수액요법 및 설파디미딘제제를 경구투여 한다.

창상 : 창상으로 예상되는 환축, 다리가 부러진 면양과 산양은 인도적으로 폐기한다. 열상이나 기타 연조직의 상처는 치료가 가능하다.

기타 질병 : 요로결석증, 귀두포피염, 갯완두중독, 피롤리딘중독 등

4. 호주동물보호협회의 노력

(1) 생축수출회사를 동물학대죄로 기소

지난 몇 년간의 혐의점에 관한 서류는 방대한 양으로 경찰당국에 제출

호주 서부지역 경찰청은 주정부와 법무담당관실을 대신하여 호주 서부지역 동물복지법²⁶⁾ 위반 하여 가축을 학대한 혐의로 서부지역 생축수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부지역 주정부에서는 전국 동물보호단체인 'Animals Australia' 에, Emanuel 소유회사와 두 명의 감독관을 상대로 하여, 2003년 11월 동 회사에서 호주 서부지역 동물복지법 제19조 (1)항 및 19조 (3)항 (a), (b), (d) 및 80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수출업자인 피고인들은 호주 서부지역 동물복지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동물에 대한 학대금지 S.19 (3)항 (a) 가축수송 도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3) (b) 가축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용 및 (3) (d) 적절한 사료를 급식하지 않은 수송방식.

혐의점은 호주동물보호협회에서 2003년도 12월에 고소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양 100,000두를 초과하여 선적하고 중동을 향하여 Fremantle항을 출항한 내용이었으며, 가축수송선박인 Al Kuwait호는 호주 서부지역 동물복지법을 위반하였다.

면양 수출은 서부지역 동물복지법 제19조를 잠재적으로 위반하였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2003년도 11월 동물보호협회는 쿠웨이트에서 세계가축복지단체인 세계농업인연대(Compassion in World Farming, CIWF)와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물보호협회 홍보이사 White를 포함한 조사자들은 Al Kuwait호가 쿠웨이트항으로 입항하기를 기다렸다가 만났다. 증거서류는 조사자들이 20년 동안 해외수출 선박에서 발생한 폐사원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이며, 이러한 선적방식은 호주 서부지역 동물복지법을 위반하였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였다.

수출회사에 대한 혐의점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호주동물보호단체와 서부지역 법률고문으로서 지도자격 수석변호사인 Bennett는 환영하였으며, 그는 2005년 1월에 동물보호협회를 대신하여 대법원에서 명령을 내려 정부에서 소송 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도록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조치는 정부에서 전면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철회하도록 요청받았다. Bennett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빠른 시일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결과에 나옴에 대하여 아주 만족합니다. 면양 선적에 관한 의문점에 대하여, 수송선에서 수용관리방법과 폐사율 측면에서 말한다면 수출과정에서 전형

적으로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면양수출에서 발생하듯이 폐사범위는 광범위 합니다.” 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Oogjes는 현재 동물보호협회 상무이사이며, “면양 수출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수출회사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만족합니다. 주정부, 법무담당관실, 경찰청에서 소송 원안에 따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2003년 11월 Al Kuwait호 항해는 생축 수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동물보호협회에서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항해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동물은 고통을 겪게 되고 폐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출기준을 시급히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호주에서는 동물복지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연합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축수출에 대하여 동물복지법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호주 서부지역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 하였다.

(2) 언론에 보도된 기사

○ 2003년 12월 : 동물보호협회 생축 수출선 ‘Al Kuwait’ 호를 동물학대 혐의로 소송제기
동물보호협회는 서부지역경찰청에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에는 2003년 11월 MV Al Kuwait호에 양 103,222두를 선적하고 중동지역을 향하여 Fremantle항을 출항하였으며, 이번의 항해는 호주 서부지역 동물복지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2003년 11월 :

쿠웨이트에서 소송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

기 위하여 동물보호협회 홍보이사 White와 세계농업인연대 영국지부 소속 조사자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서부지역에서 수출된 면양은 “불필요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송하는 행위, 즉 동물복지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다.

20년간에 걸쳐 해외수출용 선박에서 발생한 폐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생축수출에 관한 조사에 협력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증거자료는 수출생축에 대한 동물보호협회 측 변호사의 조언(Fremantle항을 출발한 모든 생면양 수출선박은 동물복지법을 잠재적으로 위반하였다)을 뒷받침해 주었다.

동물보호협회는 이 고소장을 서부지역 경찰청에 의도적으로 제출하였고, 고소내용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 및 연구문헌을 모두 제출함으로써 신뢰감을 얻을 수 있었다.

○ 2004년 3월 : 동물자유연대는 호주연방 농업부장관 Warren Truss를 MV "Cormo Express" 호 폐사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을 기만한 죄로 고소하였다. Truss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면양 폐사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 2004년 3월 : 동물보호협회는 고소장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단체로는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가 더 적합하다고 추천한 서부지역 경찰청의 조언을 받아 들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법률 상담실에서 폐사화일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확고한 증거자료가 없어서 조사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는 폐사화일을 서부지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에 건네주었다.

○ 2004년 6월 : 동물보호협회에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해서 서부지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회원 중 특정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의 의사를 헤아릴 수 없었고 회원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고조되면서부터는 오스트레

일리아 방송협회(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ABC)의 4개 독점프로그램에서도 외면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서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소송 건에 대한 조사를 취소하도록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에 요청하는 비상조치를 하였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주정부 및 지역 개발부장관과 함께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Gwilliam 장관은 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착수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또한 동물복지법이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도 있었다.

○ 2004년 6월 - 11월 : Gwilliam 장관은 사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주정부 법무담당관실로 송부하였다. 주정부 법무담당관실에서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나 법적인 조치를 함에 있어 불리한 점은 없다고 동물보호협회에 알려 주었다.

Gwilliam 장관은 폐사화일을 연방검찰총장실로 송부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사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동물보호협회에 조언하였다.

○ 2005년 1월 : 수석변호사 Bennett은 동물보호협회를 대신하여 서부지역 대법원에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영장은 법률적인 구제방법으로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적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리고 공적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패하기도 한다.

○ 2005년 1월 : 서부지역 대법원은 답변을 해야 할 사안도 있기 때문에 가판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건을 진척시키기 위한 요청을 하기도 하였고, 7월에 청문회를 열기로 하였다.

○ 2005년 4월 : 주정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정부는 소송 건에 대하여 조사 중임을 동물보호협회에 알려 주었다.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일이 이렇게 진전한데 대하여 반가워하였다.

○ 2005년 7월 : 주정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유능한 형사를 임명하여 정부와 공조체제하에서 소송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005년 10월 : 동물보호협회는 조사팀과 만났으며 경찰에게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였다.

○ 2005년 11월 : 주정부 및 법무담당관실을 대항하여 경찰청에서는 생축수출회사 'Emanuel's' 를 상대로 동물복지법 위반 및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 결과 2년경과 후, 2007년도에는 제기된 혐의점에 대하여 유죄 평결이 내려지게 된다.

(3) 동물 복지에 관한 조사

○ Welfare of cattle transported from Australia to Egypt²⁷⁾

소떼의 이동경로를 따라 이집트에 있는 도축장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집트내의 몇몇 도축장을 방문하였으며, 그 중에서 규모가 큰 작업장은 카이로 교외의 Bassatin에 소재하였다. 평일에는 수의사 69명과 도부 400명 이상이 1교대로 근무하고, 라마단 및 Eid el Kabir 기간에는 3교대로 근무하였다. 도부들은 온순하게 길들여진 이집트산 소 및 물소를 익숙하게 처리하며, 가끔씩 소는 어린이 손에 이끌려 도축장에 들어오기도 한다.

호주산 소는 사나워서 매우 위험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최소한 몇 명 이상의 도부는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기도 하였다. 몸집이 크고 사나운 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기 어려운 정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을 하였다. 사례를 들면, Bassatin 도축장에서는 처음에는 소 4-5두를 우리에서 좁은 통로를 따라 몰고 나오고, 좁은 통로로 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난 다음, 소를 줄지어 세운다. 그리고 도부는 바깥쪽에서 다가와서는 발굽에서 20 cm 윗부분에 있는 오른쪽 뒷다리 아킬레스건을 자른다. 이렇게 하므로 소를 도망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서는, 모래로 덮인 작은 통로를 가로질러서, 경사로를 통과하고 도살장 정문까지 끌고 간다. 도살장은 빗장이

평평하게 둘러쳐져 있으며, 바닥의 흙은 혈액과 배설물로 오염되어서, 미끄러지기가 쉽다.

한 군당 4-5두씩 도살장에 몰아넣고 도부들이 둘러싸고는 앞다리와 뒷다리 인대를 잘라낸다. 소의 뒤쪽이나 옆쪽에서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부는 칼로 인대를 잘라낸다. 상처를 입은 소는 절름거리며 반대편 방향으로 달아나지만 또 다른 도부가 칼질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무릎과 팔꿈치 관절을 표적삼아 칼질하여 소를 주저앉힌 상태에서 안구를 때리거나 찢어버린다. 망가진 소를 끌어내어 도살장의 넓은 작업실로 옮겨놓고서는 향문이나 음부를 찌른다. 어떤 도부는 목 부위를 절단하고 난 다음, 바로 혀를 잘라서 셔츠 속에 쑤셔 넣는다. 그동안 소는 아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바닥에서 위로 치켜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몇몇 보조인부들은 작업한 대가로 도체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한다.

생축수출회사의 중동지역대표를 만나서 Bassatin 도축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호주산 소에 대한 학대 행위를 설명하였다. 이집트로 수출한 호주산 소(2001년도에 203두 및 206두)를 도축하기 위한 인도적인 시설을 갖춘 도축장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집트는 2002년도에 2번째로 큰 규모의 생우 수입국가 이었다.

2001년 3월 생축수출회사 대표와 만나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범주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서는 아무런 일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2002년 9월-10월 세계 최고의 이슬람 대학교인 Al Azhar University에서 혁신적인 주제로 회의를 하였으며, 동물복지와 관련한 이슬람식 도축 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l Azkhar대학교 Tantawi, Sheik 박사 주최로 개최한 회의 결과, 이집트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을 하였으며, 수입과정의 몇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자행한 동물학대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회교 율법에도 어긋난다고

하였다. 도축방법을 개선하기로 동의하고 시행 계획을 세웠으나, 외부로부터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인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집트에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호주에서도 수출업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떼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호주 수의사회 결정에 대한 실망

○ 2004년 5월 : 이날 동물보호단체 총본산인 ‘Animals Australia’에서는 호주수의사회에서 생축수출에 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급주 중에 내린 결정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임을 발표하였다.

“호주수의사회는 생축의 고통을 만연하게 하는 비윤리적인 수출산업을 지지하는 대열에 합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고 동물보호협회 상무이사 Glenys Oogjes는 말하였다. 수의사는 수출회사에서 요구하는 거짓증언에 대한 진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지명된 수의사들은 무엇보다도 수출산업을 가져다주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 하나의 생축수출 산업만을 고려하게 되며 중동지역의 각기 다른 11개 국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동물복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겠는가?

(5) 동물복지에 관한 개선대책

이집트 수의사회 보고서에는 생축수출에 대한 강력한 개선대책을 요구하였다. 2001년도에 자주성향이 강한 수의사 Petra Sidhom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동물복지를 창시한 사람으로서, 카이로 인근 Bassatin 도축장에서 호주산 소는 끔찍스러운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호주산 소는 도축하기 전에 다리인대를 잘라서 걷지 못하게 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생축수출회사 대표는 카이로 근교 Bassatin 도축장에서 종사하는 도부들을 돕기 위하여 보정기구 구입비 60,000달러를 지원하고 “동물복지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임을 선언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2004년 3월 31일에 Dr Sidhom은 Bas-

satin 도축장을 방문하여 책임자와 함께 전기로 작동하는 보정기구의 작동상태를 관찰하였다. Dr Sidhom 보고서에는 “간혹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다. - Bassatin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전원이 다시 공급되었을 때 보정기구는 여전히 작동되지 않았다. 전기기술자는 작동하는데 필요한 전원은 380볼트이나 240볼트만 공급된다고 하였다.” 전원 문제를 보정기구에만 한정한다면 수압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압축기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보정기의 다리를 잡는 부분은 고무로 덮여 있었으나 쉽게 부서져서 두꺼운 금속 바(bar)로 대체 하였다. 보정기구를 다루는 훈

련은 작업인부 중에서 한사람만 받았다. 도살장 계류장에는 소가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지역주민의 분노에 대한 보상대책중 하나로써 생축수출회사는 보정기구를 설치하였다.

‘동물복지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 라기 보다는 생축수출회사의 창의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도살방법을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 수출된 생축은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호주에서는 수입국가에서 관리하는 생축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으며, 매번 수송선이 출항하여 호주 해안을 벗어날 때마다 보호할 책임도 말끔히 잊어버린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수출은 중단해야 한다.” 고 Ms Oogjes는 강조하였다.

(6) 생축 수출무역 개선에 관한 연설

○ 2004년 3월 민주당 지도자 상원의원 Andrew Bartlett 연설문

존경하는 상원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생축수출무역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호주 전역에서 요즘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빈번히 화제 거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상원에서 동물복지법 제정에 관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전 민주당 지도자인 Don Chipp씨가 발의하여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 중 하나는 생양수출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고서와 개선대책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내용이나, 과거 20년 전에도 생양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동물복지단체(동물자유를 추구하는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나 많은 단체(기타 공동단체, 산업단체 및 가장 중요한 단체로는 일반 사회)에서 동물복지법 제정을 재차 거론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양수출과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동물학대 행위가 명백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동안, 생축수출을 함으로써 호주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육가공장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본래의 모습대로 생산되는 생축을 수출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동물복지법을 제정하

고 수출을 시작한지 어언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반복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즉,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수출을 하며 그리고 동시에 제정하게 되고, 복지법 제정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또한 대중이 요구하게 되면, 또 다른 조사를 실시하고 더 많은 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되고, 다음번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그것이 당분간 유지되었습니다. 수출산업은 그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를 거쳐서 순수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모가 더 크고, 확실한 대체산업으로 존재합니다. 정육, 가공육 및 냉동육 수출은 생축수출량에 비해 이미 규모면에서는 4-5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공육과 냉동육 수출은 호주에서는 보편화된 직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방식으로 선도하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생축수출과정에서 발생한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를 고발하는 장면이 많이 담긴 60분 분량의 영상물을 관람하였습니다.

수출과정에서 잔혹한 동물학대를 하였다는 사

실이 명백히 밝혀졌을 때, 호주정부에서는 동물복지 기준에 관한 문제라고 발표하고, 온갖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결과는 개선대책으로서는 미흡합니다.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생축수출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동물학대 수준에 관해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얹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화 (60분 분량)를 관람하면서 몇몇 장면에서 동물학대 행위는 아주 구역질나게 합니다. 그 영화에서 특히 비난하는 점은, 아직도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동물보호활동가, 의사, 개인 및 비정부기구단체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수출회사나 정부는 동물이 당하는 고통의 실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감시하는 일에는 거듭 실패를 하였으며, 정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해야 할 시기가 경과되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시인합니다. 그러나 생축수출과정에서 발생한 폐사사고를 동물학대수준이란 단어로 외부에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축산업분야에서는 생축을 수출한 후 동물학대를 자행한 증거를 확인하고서 분노를 느꼈던 바로 그 나라에서 동물복지문제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는 반드시 실행해야만 합니다. 수출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재에도 생축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관리하고 도축하는 방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곳 호주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비교해 볼 때에는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면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동물복지 수준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생축수출 산업을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영화(60분 분량) 관람한 후에는 동물복지에 관한 최소한의 개선이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두 해 전에 호주수의사회 잡지에 그런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상원에서 그런 내용에 관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도축현실과 동물학대 방지 기준, 호주에서 요구하는 기준이하의 도축방식, 즉 그러한 기준에 일치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호주의 도축방식을 무시해 버린다는 내용에 관한 연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도축에 관한 기본요건을 충

족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도축산업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상원위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생축수출에 관한 주정부 보고서를 강조하는 기사를 쓰기 위하여 Australian 잡지사 Richard Yallop 기자와 만났습니다. 그 보고서는 아직도 기사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파급효과 면에서 생축수출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동물복지 면에서도 특이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고서는 호주내의 취업률 대비 생축수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가공육 부문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생축수출업자에게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생축수출업자와 가공육수출업자 간의 경쟁체제를 왜곡시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주내의 가공육 분야에서는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고 생축수출 산업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적용기준도 생축수출 분야에 비하여 가공육분야에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런 형용할 수 없는 잔인한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생축수출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주내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실제적으로 연방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므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낸 보고서를 기사화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우리는 Truss 장관을 만나서, 생축수출을 둘러싸고 계속된 사태 중 최근에 발생한 Cormo Express호 사태 해결을 위임하는 Keniry 보고서²⁸⁾를 제출하는 대응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유용했으며, 수출수입이 산적한 많은 문제들 중 최소한 일부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자료로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eniry 견해는 생축수출과정의 사전준비, 수집, 선적 및 수송단계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송 스트레스에 관한 그 본래의 특성을 더 광범위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입국가에서 가축관리에 관한 간단한 설명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차를 했을 때, 다시 수송을 했을 때, 도축을

했을 때, 가축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 호주에서 수출한 후에 생축이 겪게 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은 호주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Keniry 보고서는 한정된 부문만 언급하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과정 중 일부에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훌륭한 개선자료로서 활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개선점을 장관님은 수용하지 않아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회사에서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저는 모든 상원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호주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상원에서 표명한 관심거리인 생축수출산업과 동물복지법 제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100,000명 이상의 호주 사람이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기회가 있었으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60분 분량의 영화를 관람하면서 Cormo Express호 사태를 통하여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은 계속되었고, 호주에서의 실업은 역시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몇 가지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개선대책 중 일부는 채택된 것을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은 중등으로 출항하는 모든 생축수송선에는 실제로 수의사가 승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난 십년간에 걸쳐 계속해서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모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호주검역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상원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수출회사에 제공하는 모순된 상황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수출회사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동의를 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상원에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수출회사는 독립회사이며,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으로 상정된 의안이 취소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역상으로 비밀리에 추진해야 할 문제이므로, 보고서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공식적인 기

록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호주검역청에 제출한 보고서는 소속 수의사들이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생축수출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그 이상의 내용은 아님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실행조례를 신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례는 합당한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건은 올해 말까지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러나 이전에 들은 바로는, 또한 시일이 경과 할수록, 좋은 소식만 들립니다. "기준을 개선하게 됩니다. 재조사를 마쳤습니다. 실행조례를 신설합니다. 그 조례를 공고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행조례에는 영상물(60분 분량)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출회사가 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필요한 개선사항들을 공식적으로 내걸었습니다. 허가조건은 수출 위탁판매, 성실성 및 회사의 수출내력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하도록 하는 개선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동물복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개선사항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로 행동보다 말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정부에서 올해처럼 특별한 시기에는 Portland 및 Adelaide와 같은 지정된 항구에서 생축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대책을 무시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개선대책은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주요한 문제점들을 명백히 밝혀서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점도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중당에서 관여되어 있는 한,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뿐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어떤 개선조치라도 하는 것은 분명히 더 나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축수출과 관련된 동물학대행위는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문제로서 꾸며낸 이야기는 한 점도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문제점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생축수출로 호주에서 일자리를 잃

게 하고, 그리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동물학대를 자행하였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확실히 생축 수출산업분야에서 동물학대 수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호주에서는, 즉 실제로 가공육 분야는 침체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고용감소-생축수출로 얻는 산업적인 가치(고용창출)는 감소되었습니다.

생축수출은 지지하고 대체산업에는 반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이유는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근거자료가 미흡하였습니다. 중동지역 국가에서 충분한 냉장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

정한다면 가공육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특이한 방식으로 도축을 하고 고기를 반입해야 한다는 가정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을 하고 그 고기를 수출합니다.

주말에 방영한 화면(60분 분량)에서 보듯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해야 하는 토론의 주제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도부들이 단지너그러이 봐주길 바란다면, 호주국민은 충분한 아량을 베풀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축수출을 중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 제 점

1. 생축수출 도중 폐사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었으나, 생축수출회사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한다. 농가에서 가축을 구매하여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송선박 내부의 축사시설에 과밀하게 수용하였으며, 수송선 운항도중 환기불량, 고온 및 습도, 배설물처리 미흡으로 인한 음수 및 사료오염, 악취발생, 반추동물의 소화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미확보 및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수출회사의 개선의지는 미약하였고 개선에 관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축에 대한 사양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폐사사고에 관한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동물학대로 언급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수출회사는 수송 중 발생하는 폐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에 관련한 환기상태, 온도 및 습도조절, 배설물처리 및 청결유지 등을 위생적으로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송선박 내부구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선박의 경우에는 미흡하였으며, 일부 수송선은 악천후로 인한 심한 풍랑으로 가축이 배 멀미, 사료섭취기피, 서로 부딪히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고통을 수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였다.

3. 폐사축이나 폐기대상 생축을 대량으로 해양 투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었고

폐사체로 인한 전염병 발생으로 인근국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 일부 수송선박의 가축수용시설은 구조상으로 협소하여 대동물인소의 경우 폐사하게 되면 사체를 온전한 상태로 끄집어낼 수 없으며, 절단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해체과정에서 바닥은 혈액 및 내용물로 오염되어 다른 가축에 질병발생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4. 수출회사는 사고선박의 폐사율을 낮추어 피해상황을 축소하여 보고하였고, 호주정부(검역청)의 조사자들은 생축의 스트레스를 가한 요소, 즉 동물학대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일에는 미온적이였다. 또한 조사의 결과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조사한 폐사율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물학대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협회 소속 조사원이 직접 수송선에 승선하여 수용시설내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완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5. 호주에서 동물학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폐사사고와 관련하여 수출회사를 고발하기 위하여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를 선임하였으나, 회원 중 고위 공직자는 대외적인 국가위신을 고려하여 의견이 불분명하였으며, 동물보호협회에서 재차 인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당국에 접수처리 되기까지에는 다소 시일이 지연되었다.

6. 생축수출업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산업적인 부가가치 면에서도 고용창출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반면 육가공업자에게는 세금이 가중되었고 냉동육 수출을 위한 육가공관련 산업은 침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호주 국내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 요구와 상원의원 Andrew Bartlett 견해대로 생축수출을 중단해야 하나 수출업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고 여전히 생축을 수출하였다.

개 선 안

1. 생축수송의 첫 출발은 농가에서 시작하며, 화물차량에 적정두수를 상차하여 스트레스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먼양은 수출항구에서 검역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풀 사료에서 펠렛 사료로 서서히 변경하여 수송도중에 굶주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송선박 내부의 가축수용시설은 대동물인 소의 경우에는 밀사를 방지하고,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반추동물의 소화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생축수출회사는 수송선에 반드시 수의사를 승선시켜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를 하며, 발병한 가축은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폐사축에 대한 원인규명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수송도중 발생한 폐사사고를 절대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호주당국에서는 보다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는 동물보호협회 등 외부에 공개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생축수출회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명령하여야 한다. 생축수출회사는 이를 확고한 의지를 갖고서 실천을 하여야 한다.

2. 수출회사는 가축수용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항해 도중 동력시설 고장으로 인한 환기불량, 온도도 불량 및 사료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집단 폐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해경로상의 해상 기후정보를 분석하여 태풍 발생지역 통과 등 심한 풍랑으로 인한 수송선내 가축끼리 부딪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집단폐사사고 방지도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송도중 집단폐사 사고발생시 폐사체를

대량으로 해양투기를 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해양투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폐사체는 냉동시설에 보관하거나 육지에서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하여야 한다. 대규모의 집단폐사 사고 발생시에는 출발한 항구로 회항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사체를 처리하고, 폐사체 처리비용은 생축수출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수송도중 폐사사고 발생은 여러 해 동안 반복되었으며 생축수출회사는 사고선박의 폐사율을 낮추어 보고함으로써 의심을 받은 일이 있으므로, 동물보호협회원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단을 파견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여 일체의 의혹을 떨쳐버리도록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호주에서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생축 수송과정에서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랑하였으나, 사고선박의 조사에는 미온적이었고, 특히 증거자료 수집에는 거듭 실패하였으며, 또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회원 중 고위직 공무원 의견도 불분명하므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호주동물보호협회는 세계적인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동물보호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자국내 뿐만 아니라 생축을 수입한 국가에서도 동물복지 실현을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호주 정부는 생축수출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반면에 냉동육수출을 위한 육가공산업 분야에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축수출업자와 육가공업자간의 경쟁체제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육가공관련 산업은 침체되었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호주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호주동물보호협회는 상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는 육가공업자에 대한 지원금 및 세제혜택 등 냉동육 수출물량을 확대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하도록 호주정부에 권고하여야 한다.

7. 국내 수입한 호주산 생우는 전체 생축수출

물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송 도중 스트레스 존재여부를 검역과정에서 엄격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호주산 생우는 생산농가에서 개체에 관한 이력을 바코드로 입력하였으며, 도축할 때는 회수할 수 있으나, 입식농가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수출회사로부터 프로그램을 인수받아 활용하여 비육단계에서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하여야 한다. 향해 도중 심한 풍랑으로 소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일부 소는 바닥에 누워있을 수 있으나 다른 소에 밟혀 복벽에 심한 충격과 발자국이 남게 되는 수도 있다(사진 30. 이러한 경우 늑골이 부러지거나 내부 장기에 심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게 되며, 심한 스트레스와 세균 감염 등의 작용으로 시일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폐사에 이르게 된다. 2001년 경북 건천지역의 호주산 수입생우 입식과정에서 빚어진 폐사사고^{29, 30)} 예에서도, 수송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 및 내부장기 손상 등을 염두에 두고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승선하여 매일 임상증상을 철저히 관찰하여야 한다.

결 론

호주동물보호협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동물복지 개선을 추구하였으며, 생축수출회사에서 자행한 동물학대를 호주 서부지역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동물복지에 관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1. 호주동물보호협회는 자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중동지역 및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동물학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었다. 필리핀의 어느 시골에서 농가에 입식하여 도축하기까지 호주산 생우에 대한 학대행위를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였다³¹⁾. 중국에서는 어느 도시의 뒷골목에서 허름한 창고 바닥에 고양이와 개 모피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으며, 그 너머로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작업인부들이 도처에서 수집한 동물을 천정에 잔뜩 매달고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가죽을 벗기는 끔찍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동영상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각지로 유포되었으며, 네티즌을 상대로 하여 중국에서 자행된 동물학대 행위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고발하였다.

2.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아야 한다. 전통 음식문화로서 보신탕은 역사적인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식도락가들은 보신탕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일부 건강원에서 건강식품 원료로서 도살되기까지 좁은 우리에 갇힌 개들의 처량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건강원에 납품하기 위해서 시골농가의 개를 수집하여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화물차량을 간혹 마주치기도 한다. 비좁은 철망 안에는 개들이 마치 짐짝처럼 쌓여있고 신타래처럼 뒤엉겨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으며, 케이지를 내릴 때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물건처럼 난폭하게 바닥에 내팽겨 친다. 불법도살장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을 하게 되면 주변은 온통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되어, 죽음과 공포의 도가니를 연상하게 되고, 이를 지켜본 사람은 잠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동물학대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생명경시풍조 만연, 인간 이외의 존재들의 고통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교육현장에서의 생명교육 실종 및 윤리적인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과 오래도록 친근하게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보신탕이란 '음식문화'로 둔갑하려는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조차도 위험할 정도로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뒤 흔드는 일인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동물사랑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수의사의 신조이며, 동물 진료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겨울,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모피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PETA)'에서 "모피는 동물들만 입게 하

라"는 슬로건 아래 시위를 하였다. 물론 당국에 의해 즉시 저지되었지만,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와 나아가서는 인간성 회복을 부르짖는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하였다.

3. 가정에서 버려진 애완동물은 야생으로 변하게 된다. 특히 개는 '들개' 혹은 '숲개'로 불리우며, 4-5마리씩 무리를 지어 가축을 공격하고 등산객을 위협하는 등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방송된 유기동물보호소의 문제점에서는 그 실체가 모두 드러났으며, 일부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소는 온갖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온상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예로 동물보호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보호소로 지정된 농장에서 수의사업으로 생각하여 위탁비용을 유용하고 동물의 복지는 외면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유기동물을 번식시키거나 고기로 되팔아 수익을 챙기고, 안락사를 하지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익사시키며, 심지어 안락사 시킨 동물사체를 주택가나 도심지역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대두하였다. 위탁업소를 선정할 때에 단순히 동물수용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번식농장이나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을 선정함으로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설 보호소에 위탁처리 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시설을 설치하여 동물보호경력이 있는 단체에게 운영을 맡겨야 한다. 또

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호주의 동물복지법은 가축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무 증진, 가축에 대한 관리와 사용목적에 따른 기준 확립, 동물학대 방지 및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 실현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소, 말, 돼지, 가금류 및 면양을 수송할 때 운송기준 등 23개의 세부실시요령을 포함하는 방대한 분량의 법전으로 실제적인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축 수출역사와 함께 시작하여 폐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때마다 동물복지법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호주의 동물복지법은 생축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의 산물이며, 호주동물보호협회의 수년간에 걸쳐서 동물학대에 관하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얻은 값진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도 5월 31일에 법률 제4372호로 제정되었고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및 1997년에 이르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유기된 동물들의 적합한 관리와 보호수단으로서의 동물보호소 설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동물보호법 제7조에는 실험실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실험동물법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며, 애완동물은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또한 안락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진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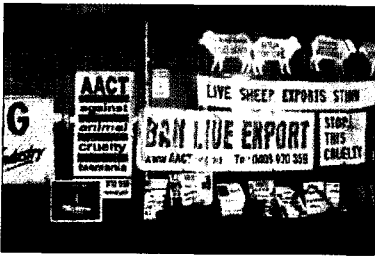


사진 1. 생축 수출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



사진 2. 동물학대를 비난하는 플래카드



사진 3. 과밀수용으로 바닥은 분변이 깔려 있으나, 개선조치 무재



사진 4.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수용시설



사진 5. 수용시설은 초만원, 사료와 물은 부족



사진 6. 수출용 생축에 대하여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런지? 분노로 가득 차있고 과밀수용으로 누워 있기 힘든 상태에서 패혈증으로 폐사한다면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사진 7. 애처로운 모습은 생축수출정책에 대한과오를 연상하게 한다.



사진 8. 고통만 주는 끔찍한 항해를 견뎌내고 목적지인 아시아국가에 도착한 후에 도축하게 된다.



사진 9. 반추동물이 섭취한 사료를 소화시키기 위한 휴식공간은 부족



사진 10. 바닥은 온통 배설물로 뒤덮여



사진 11. 온통 배설물로 뒤덮여 계속 서 있어야 하며, 동물구호반에서 향해 중 생축이 겪는 고통을 조사하기 위하여 배설물 한가운테를 걷고 있다.



사진 12. 온통 분노로 뒤덮인 바닥, 심한 암모니아 냄새



사진 13. 바닥을 가득 메운 배설물



사진 14. 분뇨가 넘쳐흐르는 상태, 소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런지?



사진 15. 음수통은 분뇨로 오염된 상태, 불결하지만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



사진 16.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바닥은 온통 분뇨로 뒤덮고 있으며, 다리에 창상이나 부상을 입게 되면,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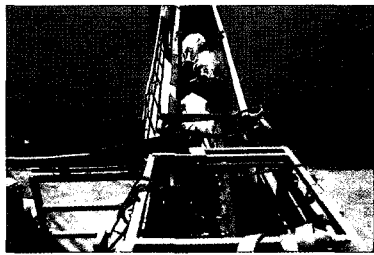


사진 17. 수송선에서 화물차량으로 이동과정. 또다시 과밀수용



사진 18. 차량은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쇠붙이로 된 양쪽 칸막이벽은 달아오른다.



사진 19. 검역소에서 계류 중인 호주산 소 및 송아지, 계류장 바닥은 분뇨로 두터운 층을 형성



사진 20. 계류장 바닥에 쌓여진 엄청난 양의 분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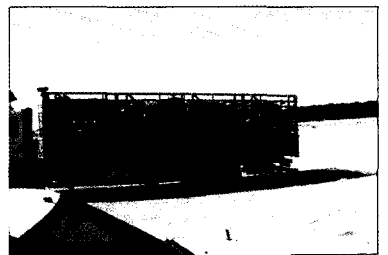


사진 21. 이층구조의 화물칸에 면양을 싣고 국경통과를 기다리는 수송차량



사진 22. 소는 분변을 잔뜩 뒤덮어 쓴 채로 수송차량에 상차



사진 23. 검역소 외부에 폐사된 채로 방치된 호주산 송아지. 긴 여정의 결과는 송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사진 24. 폐사한 송아지 죽음을 향변하는 듯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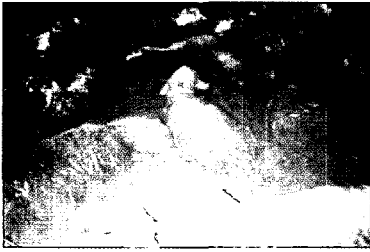


사진 25. 분뇨 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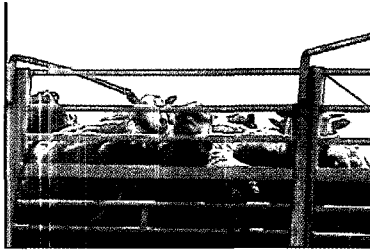


사진 26.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수송차량 화물칸은 양떼로 가득 찬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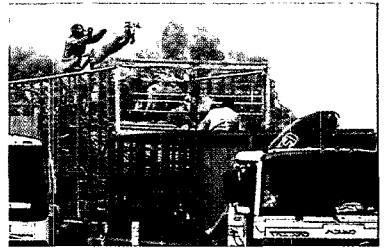


사진 27. 요르단 트럭에서 이스라엘 트럭으로 옮겨 실는 광경, 양을 던지며,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한 부상을 입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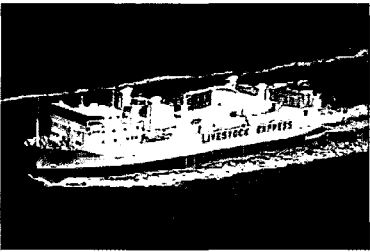


사진 28. Cormo Express호, 폐쇄형 수송선, 가축을 갑판아래에 수용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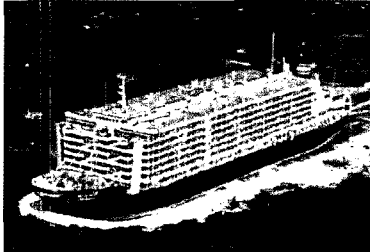


사진 29. Al Shuwaikh호, 1981년도에 인수, 가축수용시설은 갑판위에 설치된 구조



사진 30. 소끼리 서로 기대어 서 있고, 등 부위에는 소 발굽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5.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한수의 사회, 한국동물보호협회 및 동물학대방지연합 등 관련단체에서 적극 나서서 동물학대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동물보호단체 등 세계적인 관련단체와도 협력하여 공동으로 정보수집과 동물보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물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호주와 같은 선진 국가의 동물복지법을 본받아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및 감시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판매업자 및 사육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책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사체를 인도적 및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동물보호소를 설치하고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이동일. 2005. 이득 없는 호주산 생우 또 들어온다. 축산신문 1905호 : 한우·낙농섹션.
2. 이동일. 2005 생우수입 왜 또 하나. 축산신문 1911호 : 기획섹션.
3. 이동일. 2005. 호주산 생우 851두 ‘누가 사육하나’ 관심. 축산신문 1911호 : 한우·낙농섹션.
4. 이동일. 2005. 호주산 수입생우 어떻게 되나. 축산신문 1912호 : 초점
5. 이동일. 2005. 수입생우 입식 저지 힘 모아. 축산신문 1913호 : 한우·낙농섹션.
6. 권재만. 2005. 수입생우 입식농장 앞 농성 계획. 축산신문 1914호 : 한우·낙농섹션.
7. 권재만. 2005. 수입생우 사육 농가피해 불 보듯. 축산신문 1915호 : 한우·낙농섹션.
8. 장지현. 2005. 한우칼럼; 한우인의 힘,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축산신문 1923호

9. KBS 창원 News. 생우수입에 농민 반발 확산. (2005. 5.19)
10. 구자룡. 2005. 한우협회경남도지회 규탄 시위, 수입생우 사료공급업체 불매. 한국농어민신문 1763호 : 지역섹션.
11. Animals Australia. 2004. The death files cattle and sheep suffer and die during export from Australia. 1981-2003. A report from the files of Animals Australia. 6 eds. (<http://www.animalsaustralia.org>.)
12. Nicholson R. 2000. The live export trade: An economic dead end for Australia. (The report was prepared by R. Nicholson for PACAT Inc.)
13. Bartlett A. 2004. Live Animal Exports. Speech to the Senate. 31 March.
14. AQIS (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 2000. Investigation into excessive livestock mortality MV KALYMNIAN EXPRESS. (Voyage 07/99. 6th December to 17th December 1999.)
15.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 2002. Investigation into high livestock mortality MV BECRUX. Voyage of 8 June to 14 July.
16. AQIS (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 2002. Australian Government investigates high mortalities aboard 7 ships of shame in 2002.
17. AQIS. 2002. MV Novantes Voyage 83. 8 - 19 February 2002. Investigation into cattle mortalities Exporter - Austock Exports Pty Ltd
18. AQIS. 2002. Review of Mortalities - MV Al Shuwaikh V.20. 24. October.
19. AQIS. 2002. Review of Mortalities - MV Cormo Express V.84. 24. October.
20. AQIS. 2002. Review of Mortalities - MV Corriedale Express V.152. 24. October.
21. AQIS. 2002. Review of Mortalities - MV Al Messilah V.50. 24. October.
22. AQIS. 2002. Review of Mortalities - MV Al Shuwaikh V8.21. 24. October.
23. O'Shea M, Abdulla F (Editors and translators). 27 August 2002. Maldiv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autions on carcasses washed ashore on some islands. Haveeru News Service. Extracts from: Maldives Culture is an independent internet magazine of Maldivian cultural issues.
24. Live Export Shame. 2003. To those with a conscience the live sheep and animal trade. Letter from an ex Arabian Gulf Oil Rig Worker. 10 August. The letter was signed and the author provided his address and contact number. ('Live Export Shame'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use this letter in all or in part.)
25. Live Export Shame. 2001. Handbook for shipboard veterinarians (sheep & goats), Saudi Livestock Export Program. June 2001.
26.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Western Australia. 2003. West Australian codes of practice for transport and handling of animals. Animal Welfare Act.
27. Sidhom PM. 2003. Welfare of cattle transported from Australia to Egypt. *Aust Vet J* 81(6) : 364-365.
28. Keniry J, Bond M, Caple I, et al. 2003. Livestock export review. Final report. A report to the Minister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23 December 2003.
29. 장성준, 이차수, 정원일 등. 2005. 경북 건천지역의 호주산 수입생우 폐사에 관한 해부병리학적 관찰. 가축위생시험사업연보

장성준

-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 67-68.
30. 장성준. 2005. 경부고속도로의 호주산 수입
생우 폐사원인 조사. 가축위생시험사업연보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 69-74.
31. Lymbery P. 2001. Farm animal wel-
fare in the Philippines. A situation
report. *WSPA*. July 2001.